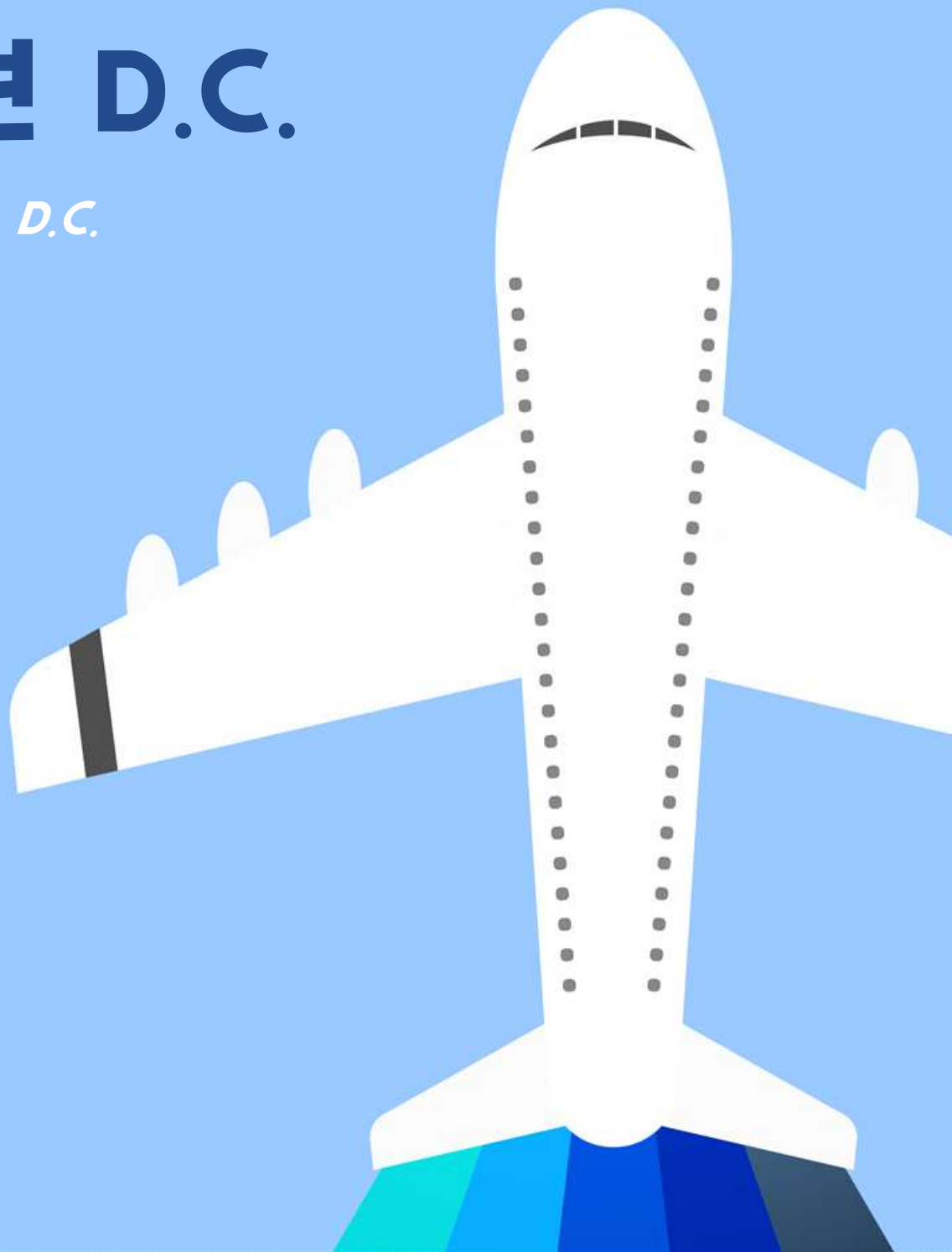


2024 해외출장 가이드

미국 워싱턴 D.C.

Washington D.C.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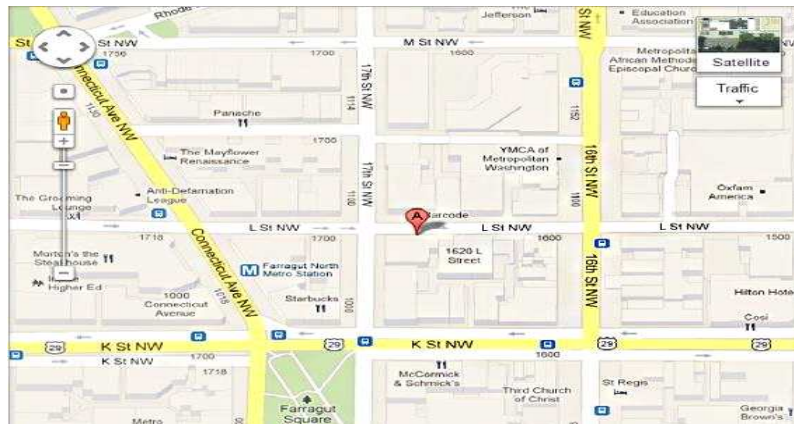
I. 출장 참고정보	01
무역관 정보	
출장 시 유의 사항	
II. 미국 경제 동향	10
국가 개요	
주요 경제지표	
최근 경제 동향	
III. 교역 동향	14
주요 교역 동향	
한국과의 경제교류	
IV. 워싱턴 지역 정보	18
일반 사항	
주요 경제지표	
워싱턴 지역 경제 위상	
V. 기타 유용한 정보	21
주요 기념물 및 관광지	
호텔 및 식당	
유용한 연락처	

I. 출장 참고정보

1. 무역관 정보

□ 워싱턴무역관 위치

- 주소 : 1660 L Street N.W., Suite 301, Washington, D.C. 20036
- 전화 : 1-202-857-7919
- 팩스 : 1-202-525-2769
- 업무시간 : 9:00~12:00 / 13:00~17:00 (토·일, 미국 연방 공휴일 휴무)
- 교통 : Farragut West역 17가 방향 또는 Farragut North역 L Street 방향
- 무역관은 DC 북서부(NW) 17번가와 L Street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



□ 공항에서 워싱턴무역관 오시는 방법

- Dulles 공항(Washington Dulles International Airport)으로부터
 - 거리 : 27마일(약 43.5km)
 - 교통편 : 택시, Rideshare 또는 전철
 - 공항 택시인 Washington Flyer 택시 이용 시 시내까지 약 40분 소요되며, 요금은 팁 제외 약 65달러에서 73달러
 - Uber는 47달러에서 102달러, Lyft는 45달러에서 61달러(2024. 11. 기준)
 - 지하철 이용 시 워싱턴 덜레스 공항역(Washington Dulles International Airport)에서 Silver Line 승차, Farragut West 역에서 하차 후 17번가와 L Street이 만나는 지점에서 하차, 약 50분 소요(편도 요금 6.75달러)

- National 공항(Ronald Reagan Washington National Airport)으로부터
 - 거리 : 5마일(8km)
 - 교통편 : 택시, Ride Share 또는 전철
 - Uber는 18달러에서 28달러, Lyft는 21달러에서 25달러(2024. 11. 기준)
 - 지하철 이용 시 공항역(National Airport Station)에서 Blue Line 승차, Farragut West역에서 하차하여 17번가와 L Street이 만나는 지점에서 하차 (편도 요금 3.05달러)

2. 출장 시 유의 사항

□ 출입국 / 비자

- 입국 절차
 - 세관신고서 작성 요구사항이 없어졌으며, 입국 심사 시 대질로 변경되었음. 세관신고서에 흔히 요구되었던 면세품 관련 및 현금 보유액 등 질문을 미리 숙지하여 정확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음.
 - 처음 도착한 미국 공항에서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CBP)의 출입국 관리 및 통관 절차를 거쳐 CBP의 입국 승인을 받게 됨.
 - 출입국 검색 시 생체인식 수단(지문)을 통해 여행객의 신원 관련 증빙 자료를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입국 목적, 여행 경비를 충당할 자금이 충분한지(신용카드 지참 시 유리), 미국 출국 계획(여행 일정표 사본 지참 시 유리) 등을 질문받을 수 있음.
 - 2013년 4월부터 미국 I-94(출입국 기록)가 전산화되어 미국 방문자는 입국 시 I-94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도 여권에 입국 도장을 받게 되었으나, 미국 입국 심사 직원들이 체류 기간을 잘못 입력하는 실수가 자주 발생하므로 입국 시 여권에 받는 이민국 도장에 입국일, 신분, 체류 만기 기간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 있음.
 - 2024년 8월부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제공하는 Mobile Passport Control(MPC) 앱이 활성화되어 앱 설치 후 입국 방식과 터미널, 인원수 등 (가족의 경우 통합 신청), 6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순서대로 작성하고 마지막 얼굴 사진 촬영 절차를 마무리하면 됨. MPC 전용줄로 이동해서 모바일 앱에서 생성된 QR코드나 얼굴 인식을 통해 입국 절차가 더 간소화되었음. ESTA 소지자도 활용 가능, 다만 MPC 유효기간이 4시간이고 도착 후 터미널 출구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하므로 입국 수속 전에 발급받을 것을 권고.

○ 비자

- 한·미 양국의 비자 면제프로그램(VMP) 체결로, 아래의 자격 요건* 충족 시 비자 없이 여행이나 사업 목적으로 90일 이내로 미국 내 체류 가능

* 칩이 있는 전자여권(e-passport) 소지 &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

○ 주한 미국 대사관 연락처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88
- 전화 : 서울지역 02) 6009-9170

한국 내 모든 지역은 국번 없이 1600-8884

□ 주요 항공편

구분	노선	편 명	출발시간	출발 요일	도착시간 (현지시간기준)
직항	인천-워싱턴	대한항공 093	10:25	매일	09:50
	워싱턴-인천	대한항공 094	11:50	매일	17:40 (+1일)
경유	인천-미네아폴리스-워싱턴	대한항공 5033 델타항공 3617	19:40	매일	23:55
	워싱턴-미네아폴리스-인천	델타항공 3554 대한항공 5034	06:30	매일	16:30 (+1일)
	인천-애틀랜타-워싱턴	대한항공 5039 델타항공 1309	17:50	매일	21:35
	워싱턴-애틀랜타-인천	델타항공 1354 대한항공 036	07:45	매일	17:45 (+1일)

* 계절별/지정학적 사유로 항공편 출·도착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 기후

<미국 주요 도시 연중 기온>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뉴욕	-3~4	-2~5	2~10	7~16	12~22	18~26	21~29	20~28	16~24	10~18	5~12	0~7
워싱턴 D.C.	-3~6	-2~7	2~12	7~18	12~24	17~28	20~31	19~29	15~26	9~20	3~13	-2~7
LA	9~20	10~20	11~21	12~23	14~24	16~26	18~28	18~29	17~28	15~26	11~23	9~20
샌프란시스코	8~14	9~16	9~17	10~17	11~18	12~19	12~19	13~20	13~21	12~21	10~17	8~14
시카고	-9~0	-7~2	-2~8	4~15	9~21	15~27	18~29	17~28	12~24	6~17	0~9	-6~2
휴스턴	6~17	8~19	11~23	15~26	20~30	23~33	24~34	24~35	21~32	16~28	11~23	7~18

* 자료원 : National Weather Service

- 워싱턴 D.C. 인근 날씨는 한국처럼 사계절이 뚜렷하며, 날씨가 가장 좋은 봄(4~5월)과 가을(9~10월)이 방문 적기임.
- 미국의 일기 예보는 비교적 정확한 편으로 복장은 한국 날씨에 맞게 준비하되, 봄·가을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에 대비한 겉옷과 작은 우산 지참이 도움이 됨.

□ 시차

- 미국의 시간대는 하와이 시간대(HT), 알래스카 시간대, 태평양 시간대(PT)와 산악 시간대(MT), 중부 시간대(CT), 동부 시간대(ET)로 나누어지며 한국과의 시차는 아래와 같음.
 - 워싱턴 D.C.는 미국 동부 시간(ET)에 따라 통상 한국보다 14시간 느리며, 일광절약시간(Daylight saving time) 적용 시 13시간 차이가 발생

<미국 시차표>

시간대	일반시차	일광절약시간	시간대 포함 도시(예)
동부시간 (ET)	-14	-13	뉴욕, 마이애미, 워싱턴 DC
중부시간 (CT)	-15	-14	시카고, 텍사스
산악시간 (MT)	-16	-15	덴버
서부시간 (PT)	-17	-16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샌디에고
알래스카시간	-18	-17	앵커리지
하와이시간 (HT)	-19	-18	하와이

* 일광절약시간은 통상 3월 두 번째 일요일에 시작하여 11월 첫 번째 일요일에 종료

□ 환율 및 환전

○ 화폐단위 : 미국 달러 USD(\$)

- (지폐) \$1, \$2, \$5, \$10, \$20, \$50, \$100

- (동전) 1¢, 5¢, 10¢, 25¢, 50¢, \$1 * \$1(달러)=100¢(센트)

○ 환율 : 1달러=1,407.00원 (* 2024년 11월 매매기준율)

- 미국 달러와 원화 간 환전은 은행, 공항 등에서 가능. 미국 현지에서 원화와 달러 환전은 환전소 및 대형 은행에서 가능하지만, 되도록 출국 전 환전 권장

○ 신용카드 : ‘현금 없는 도시’를 지향하는 만큼 호텔, 백화점, 대형 식당 및 상점 등 대부분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일부 불가능한 상점도 있음에 유의

- 미국 현지에서는 VISA와 Master 카드 등 모든 신용카드의 사용이 가능

- 식당에서는 팁도 신용카드로 지불이 가능하나, 호텔이나 공항 등에서 일부 장소에서는 현금으로 팁 지출이 필요할 수 있어 소액 현금 지참 권장

□ 전압

○ 110V, 60Hz를 사용. 한국과 전압 사용이 다르니, 출국 전 여행용 어댑터를 준비.

□ 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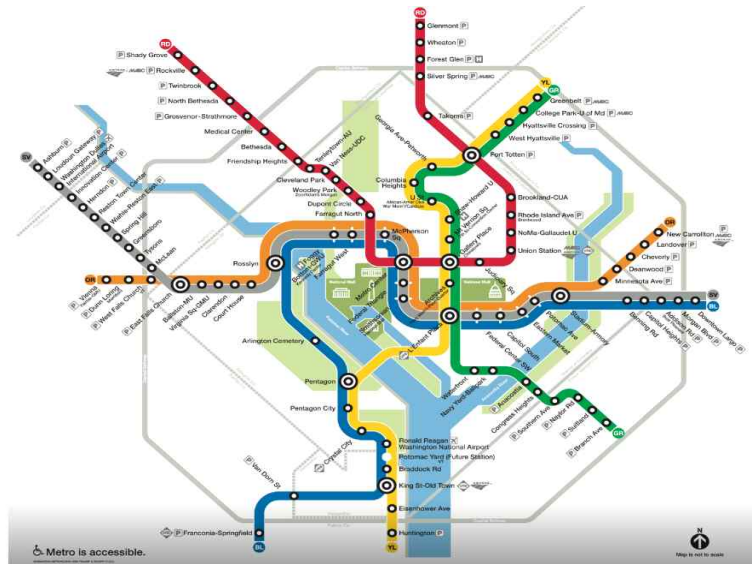
○ (택시) 기본요금은 4달러(1/8마일 기준)이며 기본 거리 초과 후부터는 1마일당 2.56달러의 요금이 가산됨. 승객당 0.5달러를 추가로 지불하며, 영수증 발급 가능

○ (버스) 일반 요금은 2.25달러이며, 구간별 추가 요금은 발생하지 않음.

○ (전철) 평일과 주말/야간(9:30 PM 이후) 시간대 요금에 차이가 있음. 편도요금은 평일은 운행 구간에 따라 2.25달러~6.75달러이며 주말/야간에는 최대 2.5달러임. 교통카드(Smart Trip) 구입비용은 별도로 전철역에서 2달러에 구매 가능

* 단, 종일권(1-Day Unlimited Pass)은 13.00달러에 구매 가능.

<워싱턴 전철 노선도>



☐ 통신

○ 휴대전화

- 휴대전화 로밍 서비스를 통해 현지에서 사용이 가능
- 대표적인 무선통신 회사로는 버라이즌(Verizon), 에이티앤티(AT&T), 티모바일(T-Mobile) 등이 있고, 유심칩(USIM)을 구매하여 휴대전화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선결제(prepaid) 방식의 요금제를 사용하게 되므로 한 달 이상 일정일 경우에 사용하길 권장함.

○ 국제전화

- 국내 및 국제통화는 원활한 편이며, 국제전화의 경우 로밍 서비스 및 편의점 등에서 국제전화카드를 구매해서도 사용 가능

전화 사용 방법			
국제 전화	미국 → 한국	일반전화	00-82-0을 제외한 지역번호-전화번호
		휴대전화	00-82-맨 앞의 0을 제외한 핸드폰번호
	한국 → 미국	일반전화	001-1-전화번호
		휴대전화	001-1-전화번호
국내 전화	미국 내 통화	일반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 와이파이

- 미국 내 일반 가게에서는 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지만, 스타벅스 및 기타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에서 무료로 사용 가능함.

□ 현지 공휴일 정보

○ 출장 지양 기간

- 연말/연초 : 대체적으로 추수감사절 이후 크리스마스-신년까지 휴가 등으로 부재인 경우가 많아 연말연시에는 비즈니스 거래 소강상태
- 7월~9월 : 대체적으로 독립기념일(7월 4일)부터 노동절(9월 첫 월요일)까지 여름휴가 기간으로 부재인 경우가 많음

* 그 외 월드뱅크·IMF 춘계(4월), 추계(10월) 총회 개최 시기 지양 권장(현지 호텔 극성수기)

<미국 연방 공휴일>

공휴일 명	기 간
신년	1월 1일
마틴루터킹 탄생일	1월 3째 주 월요일
워싱턴 탄생일	2월 3째 주 월요일
메모리얼 데이	5월 마지막 주 월요일
노예해방기념일	6월 19일
독립기념일	7월 4일
노동절	9월 1째 주 월요일
콜럼버스 기념일	10월 2째 주 월요일
재향군인의 날	11월 11일
추수감사절	11월 4째 주 목요일
크리스마스	12월 25일

* 단,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일 경우, 하루 앞당기거나 연기하여 공휴일 준수

□ 안전

○ 신변 안전

- 워싱턴 D.C.는 미국 내 다른 주들과 비교 시 안전한 도시지만, 외곽 지역으로 갈수록 위험성이 높아짐. 주요 불거리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에 있음.

□ 비즈니스 상식 및 에티켓

○ 식사

- 미국인들은 저녁 시간을 업무에 할애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강하므로, 대부분 비즈니스 관련 식사 약속은 오찬 또는 조찬에 이루어짐.
- 웨이터에게 팁을 너무 적게 지급할 경우 초대를 받은 상대방이 무안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됨.
- * 통상적으로 식사비용의 오찬 시 18%, 만찬 시 20~25% 정도 팁을 지급
- 휴대전화는 끄거나 진동으로 전환을 요망하며, 반드시 받아야 할 전화가 있을 경우는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잠깐 피해서 받는 것이 좋음.
- 남의 그릇 위로 팔을 뻗는 것은 금물이므로 근처 사람에게 전달을 요청
- 남의 음식에 손을 대거나 내 음식을 남의 그릇에 옮기지 말아야 함.

○ 복장

- 미국인들의 경우 한국인과 달리 비형식적인 면이 강함. 비즈니스에 임하면서도 간편한 옷차림을 좋아하고, 나이나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손님을 접대하는 경향이 있음.
- 미국 사무실 내에서 캐주얼 복장 착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직급이 높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정장을 선호함. 공식적으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미팅이나 상담 등의 경우는 정장을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복장은 회색이나 군청색 정장을 유지하면 되나 울긋불긋한 복장은 피해야 하며, 색깔이 있는 넥타이는 무방함.

○ 인사

- 인사를 할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예의임.
- 악수하거나 대화를 나눌 때는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는 것이 중요.
-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을 호칭할 경우 처음부터 이름을 부르는 것은 실례임. Mr, Mrs, Ms, 또는 직업을 뜻하는 명칭을 성과 같이 사용해 호칭하는 것이 공식적이고 존경의 의미를 담음. 추후 일정 정도 관계가 성립되면 친밀감의 표현으로 성을 제외하고 이름만 부르기도 함.

○ 선물

- 선물 이외에 돈을 주는 것은 뇌물로 간주하며, 선물도 50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위법임. 선물이 50달러 이상일 경우에 공공기관에 기부하게 되어 있음.
- 의미 있는 작은 선물을 감사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첫 대면에서 작은 선물은 서먹서먹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음. 바이어의 집에 초대받아 갈 때는 꽃, 화분, 과일바구니, 책 등이 일반적인 선물임. 한국에 돌아와서 감사 편지를 보내는 것은 매우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음.
- 상대방에게 선물을 받은 후에는 답례로 카드를 보내는 것이 예의.

○ 약속

- 비즈니스 약속은 근무시간 중에 하는 것이 관습으로, 일주일 정도 전에 전화로 잡는 것이 일반적임.
- 약속 시간은 철저히 지켜야 하지만, 지키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면 최소 약속 1일 전 또는 사유가 발생하자마자 상대방의 음성사서함에 메시지를 남기고 이메일로 다시 알려주는 성의를 보이고 양해를 구해야 함.

○ 문화적 금기사항

- 미국은 다인종 다종교 국가이므로, 사람의 피부색, 말투, 사회적 신분, 종교 등을 기준으로 해서 비판하고 차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
- 특정 종교, 소수민족, 인종, 여성 등에 대한 차별적 발언은 농담이라 할지라도 절대 금물. 특히, 외모에 대한 언급은 절대 삼가.

II. 미국 경제 동향

1. 국가 개요

국명	미합중국/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국경일	독립기념일 7월 4일(13개 주 독립선언일)
국가지도자	조 바이든 (Joe Biden) 대통령 제46대 대통령(2021년 1월 취임)
수도	워싱턴 D.C. / 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
주요도시	New York(840만 명), Los Angeles(399만 명), Chicago(271만 명), Houston(233만 명), Phoenix(166만 명), Philadelphia(158만 명), San Antonio(153만 명), San Diego(143만 명), Dallas(135만 명), San Jose(103만 명)
위치 및 면적	위치: 미주대륙 북부 면적: 980만km ² (한반도의 약 42배, 남한의 95배) · 세계 3위의 면적. 농지 47%와 산지 29% 등으로 구성
인구	3억 4,600만 명(2024년 11월 기준, 세계 3위)
민족	백인(76.5%), 흑인(13.4%), 아메리카 원주민(1.3%), 아시아계(5.9%), 하와이 원주민/기타 태평양 섬 주민(0.2%), 2개 이상 인종(2.7%) · 히스패닉 인구는 백인, 흑인 등 상기 6개 인종에 모두 포함되어 집계되었으며, 전체 인구 중 히스패닉 인구 비중은 18.3%에 해당
언어	영어(일부 지역은 스페인어 통용)

2. 주요 경제지표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GDP(US\$ 조)	21.5	21.4	23.7	26.0	27.7
1인당 GDP(US\$)	65,548	64,317	71,056	77,247	81,695
경제성장률(%)	2.6	-2.2	6.1	2.5	2.9
소비자 물가상승률(%)	1.8	1.2	4.7	8.0	4.1
실업률(%)	3.7	8.1	5.4	3.6	3.6
상품 교역액(US\$ 조) 증감률(%)	4.16(Δ1.61)	3.78(Δ10.21)	4.61(+18.10)	5.31(+15.07)	5.10(Δ4.0)
수출(US\$ 조)	1.65(Δ1.50)	1.42(Δ15.63)	1.76(+18.90)	2.06(+17.17)	2.02(Δ1.9)
수입(US\$ 조)	2.51(Δ1.67)	2.35(Δ6.92)	2.85(+17.60)	3.24(+13.78)	3.08(Δ4.9)
무역수지 (US\$ 억)	-8,615(Δ2.00)	-9,220(Δ6.56)	-10,913(Δ15.52)	-11,820(Δ8.31)	-10,617(Δ10.2)
외국인직접투자 (누적, US\$ 백만)	4,398,763	4,613,481	5,066,419	5,167,142	5,394,095
외환보유고(US\$ 억)	1,294	1,448	2,512	2,426	2,452
총외채(US\$ 조)	22.7	21.3	28.43	24.35	25.98
환율(원/US\$)	1,165.70	1,179.20	1,144.88	1,291.73	1,306.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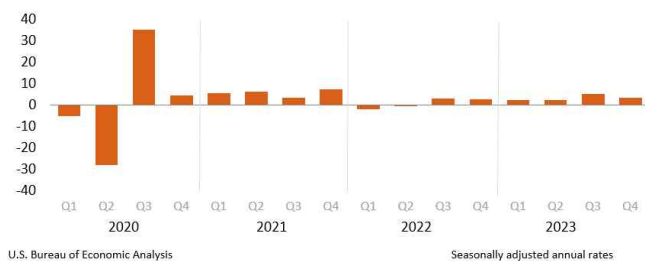
* 자료원 : 국제금융기구(IMF), 美 재무부, 美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세계은행, 한국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Global Trade Atlas

3. 최근 경제 동향

□ 경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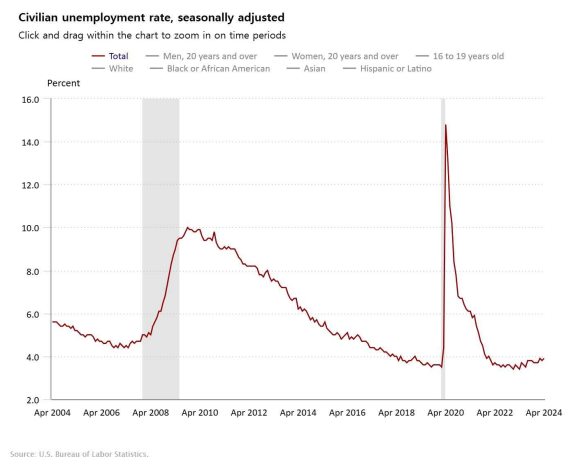
- 2024년 1분기 경제 성장률은 1.6%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2분기에는 3.0%로 반등했으며, 3분기 예비 추정치는 약 2.8%로 전망
 - 2020년 2분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충격으로 미국의 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기 대비 -32.9%(연율)를 기록했으나, 이후 꾸준한 회복세를 기록 중
 - 지난해까지 건전한 고용 지표와 활발한 소비지출이 GDP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했으나, 지속적인 물가 상승 및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올해 경제 성장률 둔화 가능성 제기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국의 실업률은 최대 14.7%까지 상승했으나, 2024년 10월 기준 4.1%로 하락하며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
 - 고용 회복의 주요 지표인 경제활동참가율은 2023년 4월 기준 팬데믹 이전 수준의 95%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남.

〈미국 경제성장률 추이〉



* 자료원 : 美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미국 실업률 추이〉



* 자료원 : 美 노동 통계청(BLS)

□ 상품 대외무역

- (교역) 2023년 교역액은 약 5조 1,6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3.7% 감소
 - (무역수지) 2023년 무역흑자가 1조 59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89% 증가
- (수출) 수출은 2조 52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6% 감소
 - 주요 수출대상국가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 네덜란드, 독일, 일본, 영국 순
 - 주요 수출 품목은 광물연료, 기계류, 전자기기, 수송기계, 항공우주 등
- (수입) 수입은 3조 1,123억 달러로 전년 대비 5.0% 감소
 - 주요 수입 대상 국가는 멕시코, 캐나다,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베트남 순
 - 주요 수입품목은 기계류, 전자기기, 수송기계, 광물연료, 의약품 등

<2021-2023 대외무역추이 비교표 (단위 : 백만 달러)>

	2021	2022	2023
수 출	1,761,709	2,085,847	2,052,683
수 입	2,851,660	3,276,876	3,112,315
총 액	4,613,369	5,362,723	5,164,998
무역수지	-1,089,951	-1,191,029	1,059,632

* 자료원 : 美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Ⅲ. 교역 동향

1. 주요 교역 동향

<2023 미국의 10대 수출입 국가>

(단위: 백만 달러, %, *미국통계 기준)

순위	수출			수입		
	국가	금액	점유율	국가	금액	점유율
1	캐나다	352,843	17.4	멕시코	473,399	15.4
2	멕시코	323,228	16.0	캐나다	421,483	13.7
3	중국	147,806	7.3	중국	421,372	13.7
4	네덜란드	82,189	4.0	독일	162,223	5.3
5	독일	76,699	3.8	일본	151,334	4.9
6	일본	76,165	3.7	한국	115,656	3.8
7	영국	74,090	3.6	베트남	112,391	3.7
8	한국	64,836	3.2	대만	87,271	2.8
9	브라질	44,808	2.2	인도	84,262	2.7
10	프랑스	44,257	2.2	아일랜드	79,765	2.6

* 자료원 :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 미국의 수출은 USMCA 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30% 이상 치중되어 있으며, 수입에서는 멕시코가 캐나다와 중국을 제치고 1위로 약 15.4% 차지
- 2023년 기준 한국은 미국의 8대 수출(3.2%), 6대 수입 대상국(3.8%)
- 한국의 對미국 수출은 '15년 처음으로 3% 이상의 점유율 기록 후 꾸준히 유지

<2023 미국의 주요 10대 수출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수출			수입		
	품목명	금액	비중	품목명	금액	비중
1	광물연료	323,170	16.0%	기계류	445,788	14.5%
2	기계류	233,009	11.5%	전자기기	444,316	14.4%
3	전자기기	200,654	9.9%	수송기계	380,830	12.4%
4	수송기계	152,826	7.6%	광물연료	256,238	8.3%
5	항공우주	124,909	6.2%	의약품	184,343	6.0%
6	광학기기	105,107	5.2%	광학기기	116,525	3.8%
7	의약품	90,308	4.5%	진주, 귀석, 귀금속	91,369	3.0%
8	플라스틱	77,796	3.9%	플라스틱	67,802	2.2%
9	진주, 귀석, 귀금속	76,672	3.8%	가구 및 침구류	63,856	2.1%
10	유기화합물	67,359	3.3%	유기화합물	53,857	1.8%

* 자료원 :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2. 한국과의 경제교류

가. 수출입 동향

□ 수출입 동향

<한국의 對미국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2019	2020	2021	2022	2023
교역량	135,222	131,608	169,115	191,550	186,968
증감률(%)	2.8%	-2.7%	28.5%	13.3%	-2.36
수출	73,344	74,116	95,902	109,766	115,696
증감률(%)	0.9	1.1	29.4	14.5	5.4
수입	61,879	57,492	73,213	81,785	71,272
증감률(%)	5.1%	-7.1%	27.3%	11.7%	-12.85%
무역수지	11,465	16,624	22,689	27,981	44,424

*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 (교역) 한미 교역액은 '20년 하락 후 '21년 1,690억 달러로 급반등하여 사상 최대 기록 후 '22년에도 두 자릿수 성장(13.3%) 하였으나 '23년에는 2.36% 하락
- (수출입) '23년 對미 수출은 전년 대비 5.4% 증가한 반면, 수입은 12.85% 감소
- (무역수지) 對미 무역흑자는 '20년부터 증가세로 전환, '22년 약 280억 달러, '23년에는 약 444억 달러로 전년 대비 59% 대폭 증가, 역대 최대 흑자 기록

□ 對미국 주요 수출 품목

<한국의 對미국 10대 수출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HS코드	품목명	2022	2023	
			금액	금액	증감률
총계			109,765	115,696	5.40
1	87	수송기계	30,303	39,998	31.99
2	84	기계류	21,006	21,664	3.13
3	85	전자기기	20,330	17,668	-13.09
4	27	광물연료	6,501	5,886	-9.77
5	39	플라스틱	4,575	3,774	-17.52
6	73	철강제품	3,546	3,125	-11.87
7	29	유기화합물	2,160	2,089	-3.29
8	90	광학기기	1,976	2,044	3.46
9	38	화학공업 생산품	1,236	1,952	57.97
10	28	무기화합품	1,503	1,938	28.95

*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 對미국 수출 품목 1위는 수송기계 및 부속품으로 2023년 기준 399억 달러 수출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31.9% 증가
 - 2023년 對미국 수출이 가장 크게 증가한 제품은 화학공업 생산품으로 전년 대비 57.9% 증가했으며, 플라스틱 수출은 17.5% 감소로 가장 저조

□ 對미국 주요 수입품목

<한국의 對미국 10대 수입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HS코드	품목명	2022	2023	
			금액	금액	증감률
총계			81,785	71,272	-12.85
1	27	광물연료	27,855	22,310	-19.9
2	84	기계류	10,176	9,605	-5.61
3	85	전자기기	6,314	6,074	-3.79
4	90	광학기기	4,829	4,628	-4.16
5	87	수송기계	4,261	3,572	-16.16
6	02	육류	3,184	2,796	-12.16
7	30	의약품	2,031	1,963	-3.29
8	38	화학공업 생산품	1,619	1,712	5.76
9	39	플라스틱	1,735	1,660	-4.31
10	29	유기화합물	1,860	1,547	-16.85

*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 한국의 주요 對미국 수입품목 중 1위를 차지한 품목은 광물연료로, 2023년 기준 223억 달러 수입을 기록함.
 - 2022년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품목은 화학공업 생산품으로 전년 대비 약 5.76% 성장했고, 다른 수입 품목은 모두 감소세를 기록함.
 - 수입이 가장 크게 감소한 품목은 광물연료로 전년 대비 19.9% 하락

나. 한미 직접투자 동향

□ 한국의 對미국 직접투자 동향

- 2023년 기준 한국의 對미국 투자금액은 약 277억 달러 기록
- 한국의 對미국 투자(신고건수 기준)는 2013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로, 2023년 3,513건을 기록함.

<연도별 대미국 투자 추이>

연도	신고건수(건)	신규법인(개)	신고금액 (억\$)	송금횟수(회)	투자금액(억\$)
2018	1,939	548	127	2,519	112
2019	2,068	652	184	2,781	148
2020	1,929	520	183	2,558	152
2021	2,219	630	373	2,735	280
2022	2,563	699	347	3,226	294
2023	2,666	697	301	3,513	277

*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미국의 對한국 직접투자(FDI) 동향

- 2022년 기준 미국의 대한국 직접투자는 약 86억 9천만 달러(신고 기준)로 전년 대비 약 65.3% 증가, 2023년에는 약 61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42% 감소
- 2022년 526건으로 집계됐던 신고 건수는 2023년 390건으로 약 35% 감소

<연도별 미국의 對한국 FDI 추이>

2019		2020		2021		2022		2023	
신고 건수	신고금액 (US\$ 천)	신고 건수	신고금액 (US\$ 천)	신고 건수	신고금액 (US\$ 천)	신고 건수	신고금액 (US\$ 천)	신고 건수	신고금액 (US\$ 천)
404	6,849,224	369	5,302,249	416	5,255,512	526	8,685,007	390	6,128,335

*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IV. 워싱턴 지역정보

1. 일반 사항

명칭	워싱턴 특별시 (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
특징	미국 50개 주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유일한 특별 행정구이자 연방정부 직할 독립 도시
정부	- 시장 : Muriel Bowser (민주당) *2015년 취임 - 연방하원의원 : Eleanor Holmes Norton
면적	177km ²
인구	686,995명 ('24년 기준)
실질 GDP	\$146,024,300,000 ('23년)
산업별 고용	- 전문직/비즈니스서비스(23%), 정부관련(32%), 교육/건강서비스(16%), 무역/교통/공익사업 (4%), 관광·레저산업(9%) *2022년

2. 주요 경제지표

구분	워싱턴 D.C.		
	수치	증가율(%)	비중(%)
실질 GDP(억 달러)	1460	1%	0.6%
실업률	5.7%('24년 9월)	Δ0.8%p('23년 9월)	-
개인당 소득(달러) * Personal income per capita	106,816('23년)		미국 전체 평균 : 69,810
가구당 중위소득(달러) * Median household income	108,210('23년)		미국 전체 중위 : 77,719

* 자료원 : 미국 통계청,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s)

3. 워싱턴 지역경제 위상

□ 워싱턴 경제의 현황

○ 고용 현황

- DC의 2024년 9월 실업률은 5.7%로 전국 평균(4.1%)을 넘는 수치

○ 연방정부 기반의 경제 구조

- 연방정부가 워싱턴 일대에서 22만 명의 공무원과 관련 업종 종사자를 포함한 지역 고용의 32%를 담당
- 2001년 이후 연방정부의 워싱턴 지역 내 지출이 50% 이상 증가하여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함. 특히 워싱턴 지역에서 연방정부의 상품과 서비스 조달 비율이 증가

○ 민간 기업들의 경제활동이 급속히 증가

- 포춘 선정 미국 1,000대 기업 중 30개 사의 본사가 워싱턴 광역지역에 소재
- 미국의 수도라는 특성으로 인해 총 6,600개에 달하는 각종 협회와 비영리기관 1,500개가 이 지역에 본부를 두고 활동

○ 첨단산업의 메카로 각광

- 항공 방위 산업, 생명공학, IT 등 첨단산업의 메카로 급성장하여 5만 명 이상의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분야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활동
- 미국 보건정책과 연구의 핵심인 국립보건원을 중심으로 대규모 생명공학 연구 단지가 조성되어 전 세계의 생명공학 연구 및 개발을 선도
- 정보통신 분야에서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 지역보다 3만 명이나 많은 22만 명 이상의 IT 관련 종사자가 근무하는 정보통신산업의 핵심 지역으로 손꼽힘

○ 지식 및 고부가가치 산업의 중심

- 연방정부와 민간기업, 그리고 첨단산업의 삼각 주축대를 바탕으로 법률, 금융, 미디어, 관광 등 지식 고부가가치 산업이 진출해 있음

□ 워싱턴 지역 주요 산업 동향

○ 항공 방위 산업

- 워싱턴 D.C. 인근에 소재한 12대 주요 방위산업체 총매출액은 1조 8천억 달러에 달하며, 미국의 방산 제품 수출은 전 세계 군수품 시장의 37%, 수입은 13.5%를 차지하는 등 항공 방위 산업은 미국의 핵심 산업으로 여겨짐
- 국방부와 각종 군 기관이 위치한 워싱턴 광역지역은 항공우주와 방위 산업의 총본산으로 이 분야에 수많은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활동

○ 바이오/제약 산업

- 미국은 전 세계 생명공학 관련 특허의 2/3를 보유하여 생명공학 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연평균 20% 이상의 고성장 구가
- 워싱턴 지역에는 국립보건원(NIH), 식약청(FDA), 존스 홉킨스 외과대학 등 바이오 관련 정부 기관 및 연구단체가 소재하고 있어 미국 3대 바이오 클러스터를 형성
- 특히 몽고메리 카운티를 중심으로 400여 바이오 연구개발기업들이 포진, 전통 제약기업과 신생 바이오기업 간 기술제휴, M&A, 라이선싱 계약 등 활발히 진행

○ IT 산업

- 상용품 개발 위주의 실리콘밸리/보스턴과 달리,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한 맞춤형 패키지 위주의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정부의 IT 기술 수요에 부합하는 종합 솔루션 제공에 주력하여 델러스, 애틀란타와 함께 주요 텔레커뮤니케이션 클러스터 형성

○ 서비스 및 관광 산업

- 정치, 사법, 행정의 중심지답게 세계적인 법률회사들이 워싱턴 중심의 K Street를 중심으로 밀집해 있으며 법률서비스 외에도 의회를 대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합법적인 로비스트로서 해야 할 역할도 겸함
- 조지타운, 존스 홉킨스, 조지 워싱턴 대학 등의 유수의 대학 기관들이 소재하여 교육, 의료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전체의 14%에 달함
- 매년 약 1천5백5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워싱턴 지역은 관광 산업 분야에서도 미국 내 최고 수준으로 광역 워싱턴 지역은 행정부 소재지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기념물이 많은 곳으로 관광 수입이 시 전체의 2번째로 큰 수입원일 만큼 관광객이 연중 끊이지 않음.

V. 기타 유용한 정보

1. 주요 기념물 및 관광지

○ 워싱턴 기념탑(Washington Monument)

-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완전 석조 구조물(68m 높이)로서 1848년 기석이 만들어진 이후 완성까지 37년이 걸렸다.
- 탑의 주위에는 미국 50개 주를 상징하는 국기가 둘러져 있고, 탑 꼭대기 전망대까지 엘리베이터로 올라갈 수 있다.
- 기념탑 앞에는 길이 690m에 달하는 인공 수조 리플렉팅 풀이 조성되어 있어 해가 진 후 조명을 밝힌 링컨 기념관과 워싱턴 기념탑의 반영이 매우 아름답다.



○ 국회의사당(The Capitol)

- 미 상하원 및 부속기관을 수용하고 있는 대표 건물로 그리스 복고 양식으로 건설되어 중앙의 돔 아래는 유명한 로툰다가, 둘레의 벽에는 콜럼버스 이후 미국의 역사를 그린 유화와 부조가 장식되어 있다.
- 건물의 한 가운데에는 링컨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정치가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고 의회 개최기간을 제외하고는 회의장을 볼 수 있다.



○ 백악관(White House)

- 약 200년간 미국 대통령의 관저이자 집무실의 역할을 해온 백악관은 총 132개의 방이 있는데, 1층의 이스트 룸과 그린 룸, 블루 룸, 레드 룸, 스테이트 다이닝 룸을 일반인에게 개방한다.



○ 링컨 기념관(Lincoln Memorial)

- 남북 전쟁 때 링컨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리스 신전 모습을 본떠서 지어졌으며, 36개의 그리스 양식 기둥을 가지고 있는 중앙에는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의 거대한 대리석 좌상이 있다.

○ 워싱턴 국립 대성당(Washington National Cathedral)

- 고딕 양식의 웅장한 건축물인 워싱턴 국립 대성당은 영국 성공회 워싱턴 교구 성당으로, 국가적 차원의 범종교적 행사가 치러지는 장소로 사용되기 때문에 “국립 대성당”으로 불린다(대통령 취임식 기도회, 국장(國葬)거행)
- 1891년 의회에서 “종교와 관계없이 누구나 기도하고 국가 차원의 행사를 개최할 장소”를 만든다는 취지로 대성당 건립이 결정되어, 100년이 지난 뒤인 1990년에야 완공되었다.



○ 스미소니언 박물관(Smithsonian Institution)

- 워싱턴 D.C.의 역사적인 유물과 순수 예술 작품들의 정수들은 스미소니언 연구소의 관리 하에 있다. 1846년 ‘인류의 지식 증가와 보급을 위해’ 영국인 제임스 스미스에 의해 박물관이 건립되기 시작하여 현재 프리어미술관, 자연사박물관, 항공우주박물관 등 현재 17개의 박물관과 미술관, 동물원이 모인 종합 박물관이다.



○ 국립미술전시관(National Gallery of Arts)

- 1941년 완공된 국립 미술관은 서관과 동관, 조각공원 등의 구성으로 건물 자체의 아름다움만으로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 약 2만 점의 렘브란트, 루벤스, 고갱, 고흐, 마네, 르누아르, 로댕 등 13세기에서 19세기 화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 마운트 버넌(Mt. Vernon)

-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생가가 있는 마운트 버넌은 그가 22살 때부터 서거할 때까지 살던 장소이다.
- 워싱턴이 살던 저택과 그의 무덤이 있으며 저택 안에는 생전에 쓰던 책상과 의자, 침대 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조지 워싱턴 생전 자취를 느끼고자 하는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2. 호텔 및 식당

□ 주요 호텔



호텔명	소재지	전화	홈페이지
월라드 인터컨티넨탈	DC 도심	202) 628-9100	https://washington.intercontinental.com/
JW 메리엇 워싱턴 DC	DC 도심	202) 393-2000	www.marriott.com
캐피탈 힐튼	DC 도심	202) 393-1000	www.hilton.com
그랜드 하얏트	DC 도심	202) 582-1234	www.hyatt.com
소피텔 라파엣 스퀘어	DC 도심	202) 730-8800	https://www.sofitel-washington-dc.com/
헤이 애덤스	DC 도심	202) 638-6600	https://www.hayadams.com/
메리엇 마르퀴스 워싱턴DC	컨벤션센터	202) 824-9200	www.marriott.com
페어몬트 워싱턴	DC 서부	202) 429-2400	https://www.fairmont.com/washington/
파크하얏트 워싱턴DC	DC 서부	202) 789-1234	www.hyatt.com
웨스틴 알링턴	알링턴	703) 717-6200	www.westinarlingtongateway.com
하얏트 라센시 타이슨스 코너	타이슨스	703) 893-1234	www.hyatt.com
스테이브릿지 스위트 타이슨스	매클레인	703) 448-5400	www.ihg.com

□ 주요 식당

식당명	지역	전화	주소
Pho75(베트남)	알링턴	703) 525-7355	1721 Wilson Blvd, Arlington, VA 22209
한강(한식)	애넌데일	703) 256-7077	7243 Little River Turnpike, Annandale, VA 22003
빛고을 순두부(한식)	애넌데일	703) 333-3436	4121 Chatelain Rd #100, Annandale, VA 22003
장원반점(중식)	애넌데일	703) 354-1950	4210 John Marr Dr, Annandale, VA 22003
Peking Gourmet Inn(중식)	폴스처치	703) 671-8088	6029 Leesburg Pike, Falls Church, VA 22041
Tachibana(일식)	매클레인	703) 847-1771	6715 Lowell Ave, McLean, VA 22101
잉글(한식)	타이슨스	202) 845-4933	8369 Leesburg Pike Suite A, Vienna, VA 22182

식당명	지역	전화	주소
Old Ebbitt Grill(양식)	DC 도심	202) 347-4800	675 15th St NW, DC 20005
The Hamilton(양식)	DC 도심	202) 787-1000	600 14th St NW, Washington, DC 20005
Five Guys (패스트푸드)	DC 도심	202) 450-3412	1400 I St NW, Washington, DC 20005
The Capital Grille(양식)	DC 도심	202) 737-6200	601 Pennsylvania Avenue NW, Washington, DC 20004
Tabard Inn Restaurant(양식)	DC 도심	202) 331-8528	1739 N St NW, Washington, DC 20036
Red Hen(양식)	DC 도심	202) 525-3021	1822 1st St NW, Washington, DC 20001
SUCCOTASH(양식)	DC 도심	202) 849-6933	915 F St NW, Washington, DC 20004
SHIA D.C.(한식 퓨전)	DC 도심	202) 802-5166	1252 4 th St NE, Washington, DC 20002
Nobu(일식)	조지타운	202) 871-6565	2525 M St NW, Washington, DC 20037
Martin's Tavern(일식)	조지타운	202) 333-7370	1264 Wisconsin Ave NW, Washington, DC 20007
Farmers Fishers Bakers(양식)	조지타운	202) 298-8783	Harbour at The Georgetown Waterfront, 3000 K St NW, DC 20007
Tony & Joe's Seafood(양식)	조지타운	202) 944-4545	3000 K St NW, Washington, DC 20007

3. 그 밖 유용한 연락처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경찰 및 앰블런스	911	-
긴급의료시설	국번 없이 411	-
주미대한민국대사관	202-939-5600	2450 Massachusetts Ave. N.W. DC 20008
주미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	202-939-5653	2320 Massachusetts Ave. N.W. DC 20008

해외출장 가이드



www.kotra.or.kr